

확실하게 가격
올림픽 여행사
☎ 213.389.7000
Toll Free: (800)235-1400

중 앙 경 제

The Korea Daily

www.joongangusa.com · (213)368-2500

LA 한인 인재 본격 '사냥'

한국 굴지의 헤드 헌터회사가 LA에 진출해 앞으로 한·미 양국간 인력 교류가 활발해 질 전망이다.

뉴저지주에 미주 본부를 두고 있는 제일 휴먼리소스 컨설팅그룹(대표 김성민)은 지난달 LA에 지사를 설치, 한인 인력의 조달 범위를 남가주까지 넓혔다.

제일 휴먼리소스 외에도 한국이 아닌 뉴욕에 최근 본사를 차린 'HR 캡' 등 4-5개 한인 헤드헌터사들이 경쟁적으로 인재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울타에서 삼양, KT, 삼성전자, CJ그룹, 은행 등 해외 채용을 위해 미주를 방문하는 한국 대기업이 늘어난 것도 이같은 업계의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 대기업·외국계 등 수요 발맞춰 유명 헤드헌트사들 속속 현지 진출

제일 휴먼리소스의 로버트 백 LA지사장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미국내 한국계 지사사, 한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해외기업 등으로 부터 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동부에 본부가 위치해 있어 그간 남가주서 인력을 조달하는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LA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백 지사장은 "현재 남가주 한인인재를 포함해 전세계 한인 우수인재

50만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상태"라면서 "인재 발굴 및 인재들의 취업중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일 휴먼리소스는 그간 엔지니어링, IT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표준선정 500대 미국기업과 통신회사 관련 산업체의 한인인력 채용을 주로 중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에 진출한 3대 미국 통신회사들이 한인 인력을 필요로 해, 미국내서 조달한 사례도 있다고 제일측은 전했다.

또 미국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미주 한인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제일 휴먼리소스의 미주 진출 배경중 하나다.

백 지사장은 "한국내 3대 대기업을 비롯해 대규모 그룹회사들이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 한인인력에 큰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업들이 인턴사원의 상당부분을 미주등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일 휴먼리소스측은 앞으로 남가주내 한인 유학생, 2세 한인자녀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더욱 강화해 한국, 미국내 한국기업, 한인을 필요로 하는 미국및 해외기업에 고용 중개를 늘릴 계획이다.

남상혁 기자